

# LIGHT UPON 우연히 마주한 것들.

October, 2017 | 이다영 에디터

## 여인과 우상

"마치 실제 사람, 즉 실제 사람을 본떠 만든 주조물이 형태라는 환상 속에 갇혀 있듯,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." 미국적 자본주의 문화, 그리고 심리적 작용 간의 균형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폴 매카시의 개인전 <Cut Up and Silicone, Female Idol, WS>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. 그간 주로 다뤄온 신화, 고전동화, 백설공주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가는 국제갤러리 전시를 통해 새로운 다층적 시리즈 작업을 최초로 선보인다. 프랑스의 저명한 화가인 프랜시스 피카비아 Francis Picabia(1879~1953)의 작품 '여인과 우상 Woman with Idol'(1940~1943)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신작, 폴 매카시가 오랫동안 매료되었던 피카비아 그림 중 거대한 이교도 우상을 안고 있는 에로틱한 여인의 형상에서 비롯된 작품들이다. 9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. [LUV](#)

PICABIA IDOL', 2015-17, SILICONE, 162.6\*76.2\*58.4cm

## LIGHT UPON

우연히  
마주한 것들.



Photography © 2017 Fredrik Nilan. All Rights Reserved. Courtesy of the Anisz, Haeber & Wirth and Rukje Gallery. Image provided by K&K Gallery



## 다실에서의 조우

홍콩의 패트론 애드리언 청은 일본 디자이너 우치다 시게루와 협업해 디자인한 가구전 <Wander from Within>을 연다. 작년에 타계한 시게루가 처음으로 협업한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유일무이한 의미를 지닌다. 전시되는 다실 작품 '교안'은 청과 시게루가 마지막으로 디자인 미팅을 한 곳이기도 하다. 협업 작품인 '코라 Khora' 시리즈는 일본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됐고, 일본 왕궁 용 물품 제작으로 유명한 장인 추토 토자와가 제작을 맡았다. 다도 문화의 정신으로 심리적,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자 한 두 사람의 바람을 만나자. 9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. 가나아트센터 3전시장. [LUV](#)

'ALU' (물에서 영감을 받은), 2017, 벤치, 아카티, 도호쿠 지역의 밤나무 파티션, 아카티, 도호쿠 지역의 밤나무, 규슈 지역의 대나무

## THE TASTE SENSE

식탁 위로 단정한 빛이 들면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광택의 광주요가 제 빛을 발한다. 광주요 특유의 부드러운 반광과 빛깔 그리고 어느 식기와도 어울리는 유려한 디자인. 광주요가 조선시대 백자 각호 角盞(각진 도자기)를 재해석한 신제품 '미라 시리즈'를 선보였다. 여기에 모던 라인 월백 시리즈, 한결 시리즈 등 색상과 질감이 다양한 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라 시리즈와 함께 구성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식탁 위를 나만의 캔버스처럼 꾸며보는 것도 좋겠다. 밥과 반찬은 평소와 다를 바 없지만 왠지 조금 더 감각적인 식사가 될 것이다. [K&K](#)

